

사설

50% 투표율 기준 현실 반영하고 있나

최근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며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단위 학생회가 빈틈없이 채워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돌아보면 선거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기보다 '투표율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 그리고 투표율 50% 도달 시까지 반복된 연장투표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는 세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는 단지 이번 선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전국 대학 선거에서 반복되는 투표 연장과 무산은 학생 사회의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의 투표율 기준은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생회 선거와 회칙 개정 투표는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절하게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국제캠 제29대 총학생회장 선거 당시 투표율이 68.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기준이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 사회의 참여 양상은 그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투표 방식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변화한 현실과 달리 기

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자치 참여율이 확연히 낮아진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도는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연장이 반복되거나 중요한 의결 사안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여 부족의 문제를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멈추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 자체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무효화하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생 사회는 단순히 저조한 투표 참여를 독려만 하는 데서 나아가 투표율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일률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현실을 반영해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단계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식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은 학생 사회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투표 연장과 무산을 더 이상 개인의 참여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다시 묻는 일이다. 50%라는 문턱이 학생 자치를 지키는 기준인지, 아니면 가로막는 장벽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시봉

백수의 의미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너 그러다가 나중에 쉬었음 청년 된다" 최근 시험을 망친 필자에게 동기가 던진 말이다. 공부 자극을 위해 건넨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최근 구직을 하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서글픈 인식을 떠올리게 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었음 청년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5세에서 34세 사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쉬었음 청년의 수는 71만 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SNS에서는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게시물에 '평생 쉬었음 청년', '그냥 백수를 이쁘게 말한 거 아니냐' 등 비꼬는 댓글이 다수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용어를 취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과정이 아닌 성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결과 없는 노력을 폄하한다. 하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켜 취업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졸업한 선배에게 근황을 묻자 취업을 하지 못해 대답을 얼버무리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주눅들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용어 변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는 문화가 필요하다.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노력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배 작가의 책 '유쾌한 유머'에는 '백수일수록 당당하라'라는 말이 있다. 김 작가는 백수는 단순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보다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선배들에게 응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폐쇄보단 개방으로

닫힌 문 앞에서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021년 3,221명이었던 우리학교 유학생이 2025년 2,486명으로 4년 새 735명 줄었다.

사전 취재 후 담당 부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글로벌입학팀에 전화를 걸었다. 대내외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내 언론인 우리신문이 학내 사안을 취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글로벌입학팀에 전화를 걸었다. 궁금한 점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고 곧바로 질문을 보냈다.

메일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전략 및 현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별도의 입장이나 코멘트를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감한다. 대학 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전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다른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2024년 6월 발족된 유학생 유치 TF팀에서 활동한 교수들, 캠퍼스 내 유학생들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유학생 감소와 내부 교육 시스템을 다룬 1회차 기사를 내보낸 뒤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다. 자료와 함께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반등 추이를 보인다고 알렸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글로벌입학팀만 아는 정보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학내 프로그램이 많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대학의 결정은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과 결과는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던 문제를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대학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내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만평 닫힌 문을 허무는 교내 언론의 역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